

# 현대삼호중 이번엔 가스 폭발

## 선박 덮개 용접 중 '굉'...인부 1명 사망·10명 부상

### 추락사고 2주만에...안전관리 '허점'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 용접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지브(jib)크레인 전복사고'로 2명의 인부가 사망, 안전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고 발생=13일 오전 10시10분께 영암군 삼호읍 용담리 현대삼호중공업 중계관 공장에서 용접용 LPG가스가 폭발, 선박 덮개(Hatch Cover)를 조립하던 용접공 문모(47·영암군 삼호읍)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일하던 임모(45·목포시 상동)씨 등 용접공 10명도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목포 중앙병원·한국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는 이날 사고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벌여 10mm 정도 찢어진 고무호스형 가스관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용접공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찢어진 고무호스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작업을 벌이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수사=경찰은 사고현장의 작업을 중단 시키는 한편, 삼호중공업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가스밸브 잠금장치 작동 ▲고무호스 고의 훼손 ▲작업 도구 적정 사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밝혀지면 전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용접가스 폭발로 11명의 사상자가 난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작업장에서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영암=위직기자 jrwi@kwangju.co.kr

# 교통사고·농작물 피해 잇따라

## 광주·전남지역 최고 210.5mm 폭우 주택 침수·어선 파손, 축대 붕괴도

13일 광주·전남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계속되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농작물이 비바람에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에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보성 210.5mm를 최고로 ▲신안 194mm ▲장흥 176.5mm ▲구례 131mm의 비가 쏟아졌다.

말복(末伏)인 14일 광주·전남 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50~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명 피해=13일 오전 8시17분께 해남군 북평면 '쇄노재' 고개에서 이모(64·광주시 남구 주월동)씨의 코란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돼 이씨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광주·전남

에서는 20여 건의 크고 작은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는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골'에서 실종된 서모(57·광양시)씨와 신원을 알 수 없는 40대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앞바다에서 실종된 최모(여·33·목포시)씨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를 계속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주택침수 및 농작물 피해=12일 발생한 주택 침수 및 농작물피해도 속속 접수됐다.

시·도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이날 집중 호우로 보성군 별교읍 전동리 주택과 구례군 구례읍 O모텔·광주시 남구 봉선동 P주택 지하실이 침수됐

다고 밝혔다.

신안군 흑산도에서는 주택 3채가 침수됐고, 함평에서는 주택이 파손되면서 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순천에서는 농경지 0.2ha가 침수되고, 110ha의 농경지에서 배 나과 피해가 발생했다. 여수와 진도에서는 32.1ha의 배가 비바람에 쓰러지기도 했다.

강풍 피해도 컸다. 신안군 안좌면 방조제 20여m와 목포경찰서 흥도출장소 건물 뒷담 축대가 유실됐고, 순간 초속 37.8m의 강풍이 덮친 신안군 흑산도에서는 높은 파도에 선착장과 가두리 양식장 4곳이 파손되고 축대가 무너졌다.

어선도 10척이 파손·전복됐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7시 현재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6곳 ▲주택·시설체소·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에서 3억2천2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고용승계 요구 前 청소용역 직원들 광주시청 주변 100m내 시위 금지

## 광주지법 결정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시청 주변에서 장기 시위를 벌여온 전(前) 광주시 청소관리 용역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시청 앞 주변 100m이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했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병하)는 13일 광주시가 전모(36)씨 등 광주시청 전 청소관리 용역 직원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 용역 직원들이 청사 정거농성·피켓시위·직원 출입 방해 행위 사실이 소명되고, 이 같은 행위를 통해 광주시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모(36)씨 등 15명은 ▲광주지법 및 앞 주변 100m이내에 출

입 및 시위 행위 ▲고성능 확성기를 통한 80dB 이상의 소음 행위 ▲시청 직원들의 청사 출입 방해 행위 ▲시청 및 시장을 비방하는 현수막 게재 행위 ▲피켓 시위 행위 등이 금지된다.

시와 용역업체 간 계약만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전 용역직원들은 지난 1월3일부터 수차례 광주시청 앞에서 고용 승계 촉구 시위를 벌이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 앞 복도를 점거, 상의를 벗은 채 농성을 벌이는 등 시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도 이날 광주시가 양립 재개발 지역 철거민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모(여·50)씨 등 4명에게 광주시청과 서구 치평동 시장 광안 앞 및 주변 100m 이내에서의 시위를 금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 티켓 다방 업주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3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김모(30)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광주시 광산구에 다방을 차려놓고, 이모(17)양 등 가출한 청소년 등 5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티켓 배달 및 성매매를 알선, 1회당 12이를 받고 찾아 온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김모(30)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는 이날 사고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벌여 10mm 정도 찢어진 고무호스형 가스관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용접공들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찢어진 고무호스에서 가스가 새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작업을 벌이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수사=경찰은 사고현장의 작업을 중단 시키는 한편, 삼호중공업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가스밸브 잠금장치 작동 ▲고무호스 고의 훼손 ▲작업 도구 적정 사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밝혀지면 전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과 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도 이날 현장 조사에 착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작업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현대삼호중공업에서는 지난 1일 오후 2시20분께 제1도크 대조탑 부 작업장에서 '지브(jib)' 크레인(고정식 600t급·높이 40m) 1대와 이동용 타워크레인 2대(300t·195t 각 1대) 등 크레인 3대가 전복돼 크레인 운전 기사 양모(36·목포시 옥암동)씨와 보조기사 신모(33·목포시 옥암동)씨가 40m 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영암=이종행기자 golee@

## 남대병원 수술실로 발령받은 뒤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처리 중 실수와 관련, 의사나 선배 간호사로부터 육살을 들은 것으로 인해 정신 질환을 앓게 됐는데도 병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병원 측의 잘못이 자살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고 유족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근무지 이동 뒤 업무 과중, 의사·선배 간호사 등의 육살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던 중 2005년 11월18일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취업 비관 30대 목매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고모(32)씨의 집에서 고씨 목 매 숨겨져 있는 것을 고씨의 어머니 박모(5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등학교 졸업 후 별다른 직장을 얻지 못한 아들이 전날 밤 취직 문제로 말다툼하던 누나(36)를 때려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괴로워했다"는 유족의 말에 따라 고씨가 취업 문제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광익기자 kroh@

# 업무 스트레스로 간호사 자살 "병원도 20% 책임 있다"

## 광주지법 판결

병원 내 언어폭력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3 단층 김승휘 판사는 13일 화순 전남대 병원 간호사 전

모(여·사망 당시 25)씨의 어머니 고모(52)씨와 3남매 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고씨에게 1천600만원, 전씨의 형제들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병원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광주 전남대병원 근무에 비해 화순 전

모(여·사망 당시 25)씨의 어머니 고모(52)씨와 3남매 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고씨에게 1천600만원, 전씨의 형제들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해 병원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광주 전남대병원 근무에 비해 화순 전

###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 모집과정
  - 공인중개사 12개월~5월 시험일: 10월28일
  - 주택관리사 12개월~5월 시험일: 10월21일
  - 주택관리사 2차(회계)포함 주택관리사 시험일: 10월21일
- 모집대상
  - 졸업후 또는 졸업후 1년 이내 자격취득 예정인 분
  - 성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40세 이상 이신 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 이신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7티사할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에 모집
  - 수료료 100~80% 환급
- 접수
  - 수강장차: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1-컬 뷰 티 교 정-

- 모집과정
  - 정비사(조·과정 원도UP, 인타넷활동, 한글문서편집 활동, 유통관리활동)
  - 정비사(조·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 모집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 7티사할
  - 수료료 100% 환급
- 접수
  - 수강장차: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수업시간
  - 월수금 19:00~21:00(7교시) ▲화목 19:00~21:00(7교시)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원 ☎224-4560, 232-1088

特報:세무公務員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 7·9 급 공무원 대특강

일세무직 2700명 공채 1차:9월16일(1200명 모집) (사상초우)  
2차:11년초(1500명 모집 예정) (대모집)

全 7·9급 일반 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험 개강 8월 16일  
南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올 하반기 시험 주야반모집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www.mdgoal.co.kr

무등고시학원 (중앙초고 후문앞) ☎ 222-4560

##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esi.co.kr

### 7급 공무원

가점직종: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경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량직, 농업직, 관공직, 보건직, 출판관리직, 기술직

79급 공무원 이른바 첫전도 (7교시) 전일합격·교정문제풀이 (매일)

합격률 3,000여명 전일합격률 100% 전일합격률 100%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9월 1일

전남대 후문 북구형 건너편 ☎234-0234 (전직종 첫전도 = 사연에따른 수업 중)

##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권능과 사물의 법칙을 전달하는 예술이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의 여왕 향상을, 성인에게는 7인의 정자처럼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의 희망을 주는 대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처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하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개인종목자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미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방학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습 화두로 떠오르는 PDI(산성)지도도 놓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주1회 8주 2개월  
★교 육 비: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동부강습서원 무등고시학원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0시간 1일 미술교실체험 유저원, 초·중등학생, 마술도전, 각·매출회원 07강령사, 마술 출강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원행사, 어유회 0여편 행사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 제1회 경찰정공인자격인증 시험일:10월 14일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제1회시험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다!  
21C 최고의 전문유망직으로 고소득이 보장된 자격증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무등고시와 함께라면 합격은 쉬워집니다.

강의 일표	무료 공개 강좌
평일반 월·수·금	교통사고 조사론(강좌)
주말반 토·일	합격에 필요한 자료 및 비법공개
개강 8월 18일	

★원서접수대행: 8월 2일~31일까지★

- ※출제 위원급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로 최다합격자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직접 방문하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

### 무등고시와 함께하는 합격강좌

- 1,2차 기본해설교재 및 적응문제집 제공
- 출제위원급 교수진들의 1,2차 합격보증 강좌
- 예습 복습 실무에 필요한 동영상 제공
- 매주 명쾌한 강의 및 적응문제풀이
- 시험직전 모의고사 실시

◆등록과 동시에 1,2차 교재, 문제집, 동영상 제공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무등고시학원 (중앙초고 후문앞) ☎(062)434-7858